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들

국민의 자랑과 희망이 되다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122집

 감사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북촌로 112 TEL : 02-2011-2114 www.bai.go.kr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들

국민의 자랑과 희망이 되다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122집


 감사원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들

국민의 자랑과 희망이 되다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122집



 감사원



올해 우리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령이 제정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연중 쉬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적극행정을 따로 강조하고 요구해야만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사례집에 소개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의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규제를 개선한 사례,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지난 1년 간 감사원에서 선정·포상한 모범사례들입니다.

수록된 사례들의 업무 분야는 각각 다르나 여기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려는 열정과 책임감, 추진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 긍정적인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 등입니다.

이번 모범사례에 선정된 분의 소감 중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되새겨 볼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경제·사회·안보 상황의 엄중함은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경각심과 역량 발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굴뿐만 아니라 사전컨설팅, 적극행정면책 제도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공직자들에게 일상이 되어 더 이상 모범사례집을 따로 펴낼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모범 공직자 분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01

모범사례
통보 제도 소개

PART

- 1. 모범사례 통보 제도 소개 10

02

모범공직자

PART

재정확충 및 효율화

- 1. 해양정보 통합 및 표준화로 예산 절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16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팀 안장현
- 2. 지능적 탈세업종에 대한 세수확보 및 법령 정비 등에 기여 30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팀 남중화
- 3. 성실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로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 38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이종일

국민 안전 도모

- 4.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4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김래곤

03

모범부서

PART

경제 활성화

- 1.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성과 제고에 기여 5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
- 2. 보유 부동산의 사회적 활용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성장에 기여 68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
- 3. 카시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건립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74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

재정확충 및 효율화

- 4.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분 추징 등으로 세입증대 등에 기여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국 부과과
- 5. 적극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으로 국세 징수 성과 거양 88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국민편의 증진 및 불편 해소

- 6. 적극적 건강검진 실시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에 기여 96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단원보건소
- 7.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완화에 기여 102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국민 안전 도모

- 8.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조성에 기여 1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
- 9. 산림공중진화대 운용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기여 118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공중진화대

행정능력 향상

- 10.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확산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126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모범사례
통보 제도
소개

PART 01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vol.22

감사원

01

모범사례 통보 제도 소개

제도 취지

모범사례 통보 제도는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포상함으로써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82년 신설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감사원법」 제34조의2(권고 등)를 근거로 감사활동 과정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창 대상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 봉사로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모범공직자로, 주 업무실적이나 사업성과 등이 다른 기관·부서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기관 또는 특정 업무 처리실적이 아주 뛰어난 부서를 '모범기관·부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기관·부서'의 경우, 공적 대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특정부서(과·팀 등)로 한정하여 해당 성과·실적 등에 직접 기여한 부서 위주로 표창

세부 유형

대분류	소분류
행정능률 향상	· 업무절차 개선,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업무시스템 구축·개선
국가·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화	· 예산절감, 세수확보, 재정누수 방지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재산권 보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 불편 해소,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 안전 도모	· 생활 안전 개선,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 예방, 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재외국민 보호
경제 활성화	·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창출, 국위선양
성실·헌신적 업무수행	· 헌신적·적극적 업무수행, 근무실적 탁월

제한 기준

모범사례 선정의 주된 사유가 되는 공적(功績) 사실이 3년 이내에 있고 해당 행위 및 성과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모범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적으로 이미 정부 표창을 받은 경우나 동일 업무에 대해 2년 이내 정부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포상

감사원 홈페이지와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추천받은 공직자, 부서·기관을 후보로 하여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업무의 중요성·난이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장 표창'과 '자체 표창(상급·당해 기관장)'으로 구분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 개원 71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중 모범공직자 및 모범기관·부서 포상

또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모범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굴된 모범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매회 약 1만 부를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2,800개 기관에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기존 모범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모범사례 ▶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사례)에서 확인 가능

추천방법

모범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공직자 및 부서·기관이 있다면, 누구든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의 '모범사례 추천'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매년 자체감사기구로부터 모범사례 후보를 추천받아 관련 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한 후 감사위원회 의결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 쉽게 따라 하는 모범사례 추천방법

1.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www.bai.go.kr) > 하단의 [모범사례] 배너



3. 실명 인증 > 사례 입력



2. 모범사례 > 모범사례 추천 > 글쓰기



PART 02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vol.22



모범공직자

재정확충 및 효율화

- 1/ 해양정보 통합 및 표준화로 예산 절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팀 안정현
- 2/ 지능적 탈세업종에 대한 세수확보 및 법령 정비 등에 기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팀 남중화
- 3/ 성실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로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이종일

국민 안전 도모

- 4/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김래곤

감사원

01

해양정보 통합 및 표준화로 예산 절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안장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팀
전)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이어도 기지에서 해경 경비정에 태극기를 흔들는 모습

“ 위 사람은 해양수산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구축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지도의 복제 승인을 활성화하여 해상 내비게이션 시장을 양성화하는 한편, 민간의 복제 수수료 경감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민간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안장현 주무관은 2012. 12. 17.부터 2018. 2. 6.까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에 근무하면서 2014. 1. 24.부터 2018. 2. 6.까지 “해양안전지도* 제작 사업”,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마련 사업”(해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해양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우리나라 인근 연안의 사고 위험정보를 전자지도 위에 표출하여 보여주는 시스템
** 해양수산정보 중 해안 및 해저지형수심 정보 등의 지리정보

해양공간정보의 경우 소관 부처(해양수산부)가 아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귀속되어 있고, 특히 해양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그 방향만



▲ 해운대 해수욕장 안전행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공자

▲ 박람회에서 해양정보 산업화를 외국 참가자에게 소개

규정되어 있을 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인프라 등이 미흡하여 전체 공간정보산업 내에서 해양정보를 활용하는 비율(2015년 매출액 기준)도 4.3%(공간정보산업진흥원, 「2016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안장현 주무관은 2015년 3월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개방 확대와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정보 산업정책 선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보고하고, 기존 해양수산정보 관련 정책 및 인프라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해양정보 산업정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요 과제 내역

과제명	과제 내용
① 산업화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융합, 표준변환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 • 민간기업에 해양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 개발을 먼저 제안하고, 우수사업에 대해 초기 개발비,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② 민간산업 육성방안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체 등록에 필요한 기술 인력 및 장비 시설, 자료 수수료 등을 최소화
③ 민간산업 육성방안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시장을 관리하여 정기적인 수수료를 취득 • 취득한 수수료는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해양정보 생산과 품질향상에 다시 투자하여 민간 Win-Win형 순환구조를 정립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

안장현 주무관은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 활용 및 민간개방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구축하는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마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장현 주무관은 이에 앞선 2017년 1월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마련하면서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마련 사업”을 통해 해양공간정보 110종, 연구과제 관련 정보 35종, 기타 22종 등 계 167종의 해양수산정보를 통합·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제 위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해양정보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

보다 많은 계 204종의 해양정보가 파악되었다. 이에 안장현 주무관은 204종의 해양정보를 모두 통합·구축하기 위해 당초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정보의 경우 ‘해양수산 빅데이터 시행계획’ 대비 37종(22%)을 추가로 통합·구축하였고, 당초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메타데이터*의 경우 701종 전체를 신규로 통합·구축하였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속성 정보

또한, 안장현 주무관은 통합 대상 204종의 해양정보 중 199종에 대해서는 직접 별도의 품질 검증을 하는 등 전반적인 오류를 개선하였고,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해양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 좌표체계로 일괄 변환·통합하였으며, 전수 조사로 확인된 전체 해양정보 701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류 기준* 및 코드 체계를 신규로 마련하는 등 해양정보의 품질향상과 통합·표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전체 해양정보를 해양수산부 업무를 기준으로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공동행정 등 계 6개 분야(대분류 11개, 중분류 50개, 소분류 217개)로 분류하는 등 분류 체계를 마련함

이뿐만 아니라 안장현 주무관은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마련 사업”의 과업 내용 중 해양공간베이스맵*을 구축하면서 이를 단순 웹서비스가 아닌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2018년 11월 현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운영 중인 공공분야 22개 시스템과 민간분야 52개 시스템 등 계 74개 시스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전체 활용 실적이 106만여 건에 달하는 등 각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해양공간베이스맵 구축 대비 9.5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민간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해양공간정보를 전자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위 사업으로 전자해도베이스맵, 일반사용자용 베이스맵, 해안선베이스맵, 영상베이스맵, 신규좌표계베이스맵, 영문주기베이스맵 등 총 6종의 해양공간베이스맵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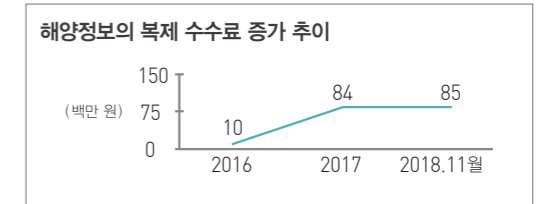
해양 내비게이션 시장을 양성화하여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

소형 선박용 내비게이션 장비(Global Positioning System Plotter, 이하 “GPS 플로터”라 한다)는 미국, 일본 등에서 1980년대에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삼영이엔씨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양오릭스, 금호마린테크주식회사 등 국내 기업도 생산·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해양 공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양지도의 복제 승인에 따른 해상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복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 업체들은 20여 년간 해양지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등 GPS 플로터 시장이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인쇄물과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여 제작한 수치제작물

이에 안장현 주무관은 해양지도의 합법적인 사용과 민간 산업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복제 승인된 해양지도를 활용하다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후, 2015. 7. 10. 전문가자문회의와 같은 해 8. 27.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같은 해 11. 30. 민간업체 등에 해양지도의 복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29. 국내 GPS 플로터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삼영이엔씨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2016. 1. 26. 주식회사 해양오릭스와 금호마린테크주식회사 등 국내 주요 GPS 플로터 생산업체 모두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양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제 수수료 등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해양수산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로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여

현재 해양정보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른 [별표 15]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제공 데이터의 용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서 해양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3차원 해저지형 정보 등의 경우 큰 용량으로 인해 이를 복제



▲ 민간기업 3곳과 해양정보 활용 MOU 체결

COMPARISON

지도 서비스



▲ 포털지도: 도로, 건물, 행정지명 등



▲ 로드뷰



▲ 차량 내비게이션



▲ 생활 편리, 산업발전, 일자리창출

바다 지도 서비스 “개방海”



▲ 바다지도: 수심, 낚시포인트, 요트항로 등



▲ (민간협력) 독도 해저로드뷰



▲ (민간협력) 3차원 선박 내비게이션



▲ 바다생활 편리, 산업발전, 일자리창출

관련 언론보도



▲ KNN 뉴스보도



▲ KBS 뉴스보도



▲ MBC 뉴스보도



▲ KNN 뉴스보도



▲ MBC 뉴스보도



▲ 인터넷 뉴스보도



INTERVIEW

문제를 저는 '해양정보 산업정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법률 자문과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 설명회 등을 통해 소극적인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제도권에 들어온 민간기업들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한 결과, 민간기업이 새로운 3차원 바다 내비게이션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나 민간기업의 담당자들이 해양지도 사용 수수료를 내게 될 상황임에도 "앞으로 해양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해달라. 주임님 같은 공무원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5. 모범사례 또는 현재 맡으신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저는 현재 인사이동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해양정보 공동 활용과 산업화 업무는 관련 법정계획과 주요 정책 계획들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에만 중심을 두었던 조직문화에서

정보의 표준화와 품질 확보, 활용 확대에도 관심을 두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지만, 아직 관련 법령 제정 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업무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기회가 된다면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6.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용기 있는 슬기로운 사람 앞에는 역경 따위가 없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서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저를 원망하는 때도 있겠지만, 이번 수상으로 이를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얻은 것 같아 감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임무를 책임감 있게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미래 발전적인 방향들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주신 담당 감사관님들과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주신 감사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 변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을 자극하는 원가를 계속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제 초등학생인 제 아이들도 이 말처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용기와 지혜를 갖길 바라고, 저 또한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VIEW

작성자 **오행록**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안장현 주무관은 바쁜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묵묵히 노력합니다.

안장현 주무관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으로 2006년 11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수산직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남쪽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관리·운영 업무에 투입되어 국가 해양영토의 길목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편도 5시간씩 낚싯배를 타고 이어도 기지에 다니며 연구자, 기술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경험도 제일 짧았지만, 이어도 기지에 문제가 생기면 기상악화 속에서도 혼자 기지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어도 기지 발전기를 위성으로 원격 조정하기 위해 야밤에도 집과 사무실을 수차례 오가는 등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 법·제도 업무와 혁신도시 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과 조직, 예산 업무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해양조사

시장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혁신도시 청사 이전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임시 숙소, 공무원 아파트 및 직원 관사 임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어려운 업무에서도 항상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태평양 지진해일 경보센터에 교육 파견을 다녀와서, 국제업무 관련 훈련도 마련하고, 기관 내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필리핀, 피지)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지원(ODA)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동아시아 해양공간정보 워킹그룹(EAHC MSDI WG) 구성에도 앞장서는 등 국제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전자해도 수수료 정책을 개선하여 해외 감과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 법·제도 업무와 혁신도시 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과 조직, 예산 업무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해양조사

3년 연속 선정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서 결산, 집행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산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우리부 출범 이래 가장 높은 90% 이상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19년 현재는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예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연구개발 예산인 약 6,8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안장현 주무관은 바쁜 업무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은 싫어하는 힘들고 바쁜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묵묵히 노력합니다. 최근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청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기쁨이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 모범공직자입니다. 

02

지능적 탈세업종에 대한 세수확보 및 법령 정비 등에 기여



남중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팀



▲ 나대지임에도 건물 철거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직전 연도에 허위 신고한 사례

“ 위 사람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세수 확보와 법령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중화 주무관은 2017. 1. 13.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중화 주무관은 건물신축판매업종에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소액으로 허위 신고하여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2017. 4. 10.~4. 27.) 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있는지 점검하여 7건 21억여 원의 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이와 같은 지능적 탈세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해 소액으로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다음 해의 고액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탈세하는 수법

그리고 남인천세무서의 추징사례를 통해 수입금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전국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

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전국의 건물신축판매업자 수가 2012년 478명(396억 원)에서 2016년 1,469명(2,088억 원)으로 그 인원이 307.3%(금액 527.3%) 증가하는 등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남중화 주무관은 2017년 5월 경 감사2팀장에게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다음 과세연도에는 수입금액을 30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건물신축판매업자 697명에 대한 특정(기획)감사를 제안하였고,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팀은 2017. 6. 19.부터 같은 해 9. 4.까지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은 본청에서 직접 점검하고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일선 세무서를 통해 자체점검하는 방식으로 특정(기획)감사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남중화 주무관은 감사착수 전 [표1] “탈루혐의 확인 및 점검방법”을 직접 작성하고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여 점검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일선 세무서의 직원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 탈루혐의 확인 및 점검방법

① 고철·토사 소매업	나대지, 건물 철거로 발생할 고철이 없음에도 고철 등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 매출 신고 - 고철 등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부산물 판매수입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 - 인터넷 지도, 건축물 멸실철거 신고서상 철거일과 고철 매출일 비교, 고철 시세와 매출 금액 비교, 고철 매입자의 사업장 존재 여부 등 확인
② 서비스업	일시적·우발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업소득으로 계상 - 분양대행수수료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
③ 부동산 임대업	건물신축·철거 전 건물을 단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신고 - 건축물 멸실철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지도, 보증금 및 월세 금융 증빙
④ 기타 업종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액 매출 신고 - 금융 증빙 등을 제출하더라도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지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추가 확인 필요

또한, 감사기간 중에도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의 탈루혐의를 대부분 직접 점검하면서도 전화·이메일 등으로 탈루세액 수정 신고내용 및 “탈루혐의 확인 및 점검방법”을 일선 세무서에 상세히 안내하는 등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점검대상 697명 중 수정신고 등 지적 349명(50.1%), 조사지시 190명(2019년 5월 현재 미결 82건) 등을 통해 총 1,258억 원을 추징*(2019년 5월 현재 수납액 계 826억 원)하였다.

* 1,258억 원 중 826억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65.6%임

이뿐만 아니라 지능적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점검 결과를 소관 국인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 통보하고 [표2]와 같이 2018. 2. 1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7호) 제143조를 개정(시행일 2019. 1. 1.)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소액으로 허위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여 납세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세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가 크다. ㉠

[표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역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업종별 6천만 원/3천6백만 원/2천4백만 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단서 신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 *업종별 3억 원/1.5억 원/75백만 원
 - *개정사항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시행



남중화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2팀



Q1. 모범사례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국세청에는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저를 모범 공직자로 선정해주신 것은 지능적 탈세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선직원들에게 점검 방법을 공유하여 공평과세에 기여한 점을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동력으로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NTERVIEW

Q2.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범 사례로 선정되셨는데,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17년 국세청 감사관실로 발령받아 소득세 분야 탈세 자료를 수집하던 중 건물신축판매업종이 세법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인천세무서 종합감사에서 해당 내역에 대해 점검을 해보니, 실제로 지능적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장권철 감사팀장님과 상의한 후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Q3.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고액의 세금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일부 납세자들이 반발하였고, “특정 업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거듭된 설득과 과세논리 개발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세금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에서 모두 기각 처분을 하여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Q4.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 인가요?

A 전국 확대 점검에 앞서 지능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한 '탈루혐의 확인 및 점검 방법'과 '단계별 세부 점검요령', 그리고 '각종 탈루 사례'를 작성하여 일선 세무서에 전파하였음에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근거자료도 없이 해명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 직원들 에게 개별적으로 메일과 전화로 혐의사항과 점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서 고유업무만 해도 바쁜데, 점검을 꼭 해야 하나?”라고 하던 직원들도 점검이 진행될 수록 진지하게 탈세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난 후, “남 조사관님 덕분에 납세자의 탈세 수법을 알 수 있는 등 실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몸과 마음의 힘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고, 점검을 마치던 날 감사2팀 식구들이 “고생했다.”라며 소주잔을 건넬 때 여름 내내 땀 흘려가며 점검한 성과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INTERVIEW

Q5. 모범사례 또는 현재 맡으신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세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더이상 단순 경비율 제도를 악용한 탈세 행위가 사라지게 되었고, 신고기한 미도래 등으로 당시 점검하지 못한 건에 대해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점검하는 등 저의 작은 노력이 공평과세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은 보호하겠지만,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감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6.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감사관실은 보통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이번 점검으로 인해 8월에 착수하는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권철 팀장님과 조미희 사무관, 장영철, 이권호, 정성진 조사관 등 감사2팀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만 이런 좋은 영예를 얻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름휴가 기간 중임에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업무 점검을 하느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와 두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감사원장 포상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감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VIEW

작성자 장권철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남중화 조사관은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중화 조사관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1997년 국세청에 국세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후 반포세무서를 시작으로 지난 23년간 중부청 조사1국, 조사2국 및 감사관실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남다른 열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감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시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을 발굴·개선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업무에 매진하는 바쁜 와중에도 ‘전국 감사분야 전입 직원 교육’, ‘감사 지적

사례’, ‘전국 팀장 교육’ 등의 교육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중화 조사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집안의 작은 일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챙기는 등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사랑스러운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남중화 조사관은 가족과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 보이는 동료라면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고 동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동료입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이지만 바쁜 업무에 치여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업무를 처리해주고,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 보이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고 동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동료입니다.

동료에게 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으로, 직장에서는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직자로 타의 모범이 되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해하는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멋진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

03

성실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로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

모범공직자



이종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한 위 사례를 널리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고 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이종일은 2017. 2. 16.부터 2019. 6. 10. 현재까지 위 관서에서 관할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고용장려금 예산은 3조 7,879억 원으로,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일자리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2016년 18.0%→2017년 18.6%→2018년 19.7%)하고 있는 데 반해, 2018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77건(35억여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26,839건)의 2.5%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장려금은 사업장에서 신청서 등을

지원 요건에 부합하도록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적발하기 어렵고, 지원금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금 별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지원 요건이 달라 그에 따른 부정행위 유형과 방법이 다양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지원금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정수급 적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적발·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수사관이 지원금별 사업의 성격, 지원 요건 등에 대해 숙지하고 부정수급 관련 제보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 주변에 대한 탐문과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이력, 출입국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

▼ 경찰청 수사관들과의 업무협의 모습





그런데 고용보험수사관 이종일은 2017. 2. 16.부터 위 관서 부정수급 조사과에서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수급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위 사람은 2017년 6월 위 관서 소속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채용되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들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일정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모두 동일하여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외근 중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서류상으로 부정수급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조사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종일 수사관은 제보된 내용에만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의 이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친인척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약 4주간(2017. 6. 9. ~ 7. 9.)에 걸쳐 조사 대상자들의 통장 거래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거래 실적 등의 확인과 사업장 건물의 입주자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문 조사를 통해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에 출퇴근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위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호만을 달리하여 허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3개 사업장에 9명을 허위로 고용하고 고용장려금 등 계 68,353,92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11명을 형사고발 하는 등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부정수급조사 교육에 강사로 위촉되어 신규 고용보험 수사관들에게 부정수급 조사기법 및 사례를 전수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업무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활동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종일 수사관은 성실하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2018년 고용보험 수사관 1인당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약 16백만 원)의 약 30배인 492백만 원(반환명령액 624백만 원)을 적발하는 등 전체 고용보험 수사관 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1위를 차지하였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17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하였다. 📌



이종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Q1. 모범사례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공직에 몸을 담은 지 어느덧 28년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란 등 공사(公私)의 무수한 사건·사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전광석화처럼 흘러간 세월에 다소 미련과 회한이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한 일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INTERVIEW

Q2.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범 사례로 선정되셨는데,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우리 부서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란에 의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왔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 수급 예방 및 적발이 꼭 필요하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부정수급이 만연 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겠다는 판단하에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관련 업무를 14년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Q3.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우리 부서의 업무 특성상 지급부서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명령하고 제한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민원 불만 또는 법적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 조사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어 항상 업무량이 방대하여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한 인력배치 및 활동비 지원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4.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 인가요?

A 2015년도 서울청 부정수급조사과에서 근무 하였을 때가 기억납니다. 전국에서 부정수급 적발 실적이 최하위였던 부서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1년 만에 전국 최우수부서가 되도록 산업별 특성에 따른 기획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여 연말에는 부정 수급 조사의 달인으로 선정되었고, '올해의 고용 서비스상'을 수상하여 포상으로 해외연수도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중부청으로 발령 받아 부정수급 적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관 1인당 평균 부정수급 적발금액보다 30배 이상을 달성하였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수급 조사 후 이에 대한 잘못을 반성 하고 인정하는 진술을 받을 때와 부정수급 반환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다시는 부정수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전화를 받을 때 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INTERVIEW

Q5.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우리 부 부정수급 조사업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겼고 전문성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와 조사기법들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수사관 부정수급 조사 매뉴얼'을 집필해보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는 고용노동 연수원에 출강하여 후배들에게 부정수급 조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후배들을 직접 만나 조사기법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남은 직장생활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6.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수사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언제나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을 관찰하게 되기 쉬운데 수사 업무도 결국 공직생활의 일부분이므로, 후배 수사관님들도 사회에 대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팀 수사관들과 우리 부서 동료직원들 그리고 수상의 영광을 주신 감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VIEW

작성자 김현숙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팀장

“이종일 수사관은 동료가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술선수범하여 도와주기도 하고 대신 업무처리를 해주기도 하는 등 동료애 또한 남다르며...”

이종일 수사관은 1991년 1월 법무부 김포출입국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1999년 1월 노동부와 인연을 맺었으며 2006년에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직업학으로 전공 석사학위를 받는 등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IMF의 여파로 대량해고 및 경기 악화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인천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인 대우자동차가 부도나면서 해고된 실업자들이 속출하자, 이종일 수사관은 실직의 아픔을 크게 공감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직 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업무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구인난에 허덕이던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여 구인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책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2003년에는 몽골에 출장을 가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몽골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한국어 시험을 지도·감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종일 수사관은 적극적이고

직원으로서 선정되는 등 업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료가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술선수범하여 도와주기도 하고 대신 업무처리를 해주기도 하는 등 동료애 또한

“기획조사에 능하여 한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도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기획조사에 능하여 한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어 2015년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하여 서울 지방노동청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도 하였으며, 2017년 중부 지방노동청에 발령받은 이후에는 매 반기마다 부정수급 방지 우수

남다르며, 부서 내 체육대회와 직원들과의 화합의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또 한 번 뜻깊은 상을 받게 된 이종일 수사관에게 우리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구성원 모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04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김래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 위 사람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등의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하여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김래곤 경위는 2016. 1. 28.부터 2019.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 등을 주관하면서 2018. 11. 1. ‘노인보호구역 및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해 보행 신호시간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최근 3년간(2016~2018) 노인보행사고는 2016년 219건, 2017년 224건, 2018년 246건(2016년 대비 12.3% 증가)으로 노인 보행사고 발생률은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노인 사망자는 2016년 102명, 2017년 111명, 2018년 9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의 비중은 연평균 44.9%*에 이른다.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2018년 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6명으로 OECD 평균(8.8명)의 약 3배이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의 42.2%인 1,767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따라 김래곤 경위는 20년 이상 교통 시설 담당 등 교통 분야에서 근무한 교통안전시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재직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령사회 도래 등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외 교통약자를 고려한 보행 신호시간 관련 연구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경찰청이 노인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인보호구역 이외에도 노인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우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이 없는 경우라도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보행속도 기준을 1.0에서 0.8m/sec로 완화, 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하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이라고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김래곤 경위는 교통과 팀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으로 노인보호구역(27개소) 및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점(33개소) 등 총 60개소를 선정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추가로 부여(노인보호구역 0.8→0.6m/s 적용*,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점 1.0→0.8m/s 적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2018. 11. 1.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11. 5.부터 다음 해 1. 4.(2개월간)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 31개 경찰서가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에 아래와 같이 전국 최초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통종합요양센터 및 매탄초교 앞 2개 지점 횡단보도에서 노인 횡단보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횡단시간 내 횡단보도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효과분석을 하였으며 설문조사도



1. 보행시간 적정여부 문의 모습
2. 워크숍 개최 모습

3. 보행시간 내 횡단보도 횡단여부 확인 모습
4. 보행신호시간 연장 현장 점검 모습



600명(노인 300명, 일반인 180명, 사업용 차량 운전자 120)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여 보행시간 추가 부여 전·후의 체감안전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 2018년 8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노인 1,348명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 보행속도 하위 4분의 1의 경우 보행속도는 0.663m/s이고 여자 노인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0.545m/s로 우리나라 노인의 보행속도가 국제 기준인 0.8m/s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위 사람은 이를 감안하여 0.6m/s를 적용함.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2018. 11. 5.~2019. 1. 4., 2개월)

개요	결과
시범운영 개요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 총 60개소에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 적용하면서, 직접 노인보행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실시
노인 보행자 모니터링 결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통종합요양센터와 매탄초교 앞 2개 지점 횡단보도에서 노인보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모니터링 - 횡단보도 잔류 총원이 95명에서 34명으로 64.2% 감소 - 교통사고 발생은 3건에서 1건으로 감소, 사망사고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발생(전년 동일 기간 대비)
설문조사 결과	600명(노인 300, 일반인 180, 운전자 120)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행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7%(특히 노인은 72%)로 체감안전도가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안전에 도움) 전체 600명 중 346명(57.7%) / 노인 300명 중 216명(72%)

그 후 김래곤 경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표]와 같이 1단계 개선 대상지점으로 2016~2018년 '횡단보도 내 노인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를 선정하고, 2단계로 노인이용시설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지점의 횡단보도 243개소(노인여가시설 142, 노인주거시설 89,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12개소)를 추가 조사하여 보행속도 기준을 1m/s에서 0.8m/s로 낮추는 계획을 직접 수립한 다음 2019. 2. 12.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13.부터 3. 15.(5주간)까지 개선하도록 시달한 후 해당 기간 중에 관내 31개 경찰서 담당자와 함께 1단계 689개소, 2단계 243개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신호시간

조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보행신호등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1단계 591개소, 2단계 94개소의 보행시간을 연장하였고, 2단계 기간 중 [사진]과 같이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를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사연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배포하였다.

[표] 단계별 추진 기간 및 대상(2018. 11. 5.~ 2019. 4. 5., 5개월간)

구분	기간	대상
시범 운영	2018. 11. 5.~2019. 1. 4. (2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점 33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27개소 총 60개소 중 33개소의 보행신호 연장 시범기간 동안 모니터링(1,000명 대상)과 설문 조사(600명 대상) 수행
1단계	2019. 2. 13.~2. 28. (1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2018년 '횡단보도 내' 노인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소 중 591개소의 보행신호 연장 ※ 시범운영 장소 33개소의 보행신호를 연장 운영 중
2단계	2019. 3. 4.~3. 15. (2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이용시설 등 노인 통행량 많은 곳 인접 횡단보도 243개소 중 94개소 연장 (243개소: 노인여가시설 142개소, 노인주거시설 89개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12개소) ※ 홍보 동영상 제작: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를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사연을 담은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3단계	2019. 3. 21.~4. 5. (2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공원 등 실질적으로 노인 통행이 많은 211개 지역 주변 횡단보도에도 보행시간 연장

[사진] 노인 배려,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홍보 동영상



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은 업체에 맡겨 제작(제작비용 33만원)

또한, 김래곤 경위는 3단계로 전통시장·공원 등 실질적으로 노인 통행이 잦은 시설 주변 횡단보도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행속도를 1m/s에서 0.8m/s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 3. 21. 위 관서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3. 21.부터 4. 5.(2주간)까지 위 계획



내용대로 개선하도록 시달하여 211개소의 보행신호시간이 연장되도록 하였고, 보행시간 연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관내 31개 경찰서와 수시로 노인 사망사고 예방 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9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노인의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개선할 예정이며, 전국 노인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을 재검토하여 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노인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및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노인 이용시설 등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5. 팀회의 모습
- 6. 홍보영상
- 7. 언론보도

김래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Q1. 모범사례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1991년에 순경으로 입직하여 용인 수지파출소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덧 경찰에 몸담은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뚜렷이 남긴 것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INTERVIEW

Q2.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범 사례로 선정되셨는데,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당시 저희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노인 보행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의 비중은 연평균 44.9%나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한 교통안전시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서 '어르신들은 왜 보행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가 아닌 '교통약자에게 보행 신호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내·외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 관련 연구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없는 경우라도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 초교사거리와 영통종합양양센터사거리 에서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약 천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보행신호시간 연장 전·후로 나누어 이들이 보행신호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차례 부탁을 하는 등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Q4. 해당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 인가요?

A 저는 순경 시절 우연히 접한 교통시설 업무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선형이 맞지 않아 차 사고가 잦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전보다 편해졌다."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 사업도 관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횡단보도를 편히 건널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사업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INTERVIEW

Q5. 모범사례 또는 현재 맡으신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교통시설 업무는 현장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Q6.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감사원에서 저를 모범공직자로 선정해 주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한 교통시설팀 동료들과 항상 곁에서 성원해 주신 교통과장님, 교통계장님들의 공로 또한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의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언제나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VIEW

작성자 김누리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시설팀장

“김래곤 경위는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전보다 편해졌다.",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에도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김래곤 경위는 1991년부터 경찰관으로 공직에 몸담으면서 경찰 근무 28년 중 20여 년 동안 교통 업무에 종사한 교통 업무 베테랑입니다. 경기도 전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수시로 교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잘 소통되도록 신호연동화를 요구하고, 보행자는 교차로에서 도로를 편리하고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확대 설치와 보행 관련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 우리 경찰청에는

매일 상반되는 민원들이 끊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시설 담당 경찰관들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래곤 경위는 우리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전문관으로서 성실을 모태로 항상 교통시설업무 발전을 위해 자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모범적인 동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민원 현장의 교통환경과 도로여건을 분석·판단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신호기, 횡단보도, 유턴 구역 등 교통시설을 적시 적소에 설치하거나 이설·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가꾸어가는 김래곤 경위를 우리 팀 모두가 응원합니다! ☺



▲ 횡단보도 거리 측정 모습

PART 03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vol.22



모범부서

경제 활성화

- 1/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성과 제고에 기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
- 2/ 보유 부동산의 사회적 활용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성장에 기여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
- 3/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립을 통한 국가 이미지제고 등에 기여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

재정확충 및 효율화

- 4/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분추징 등으로 세입증대 등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국 부과
- 5/ 적극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으로 국세 징수 성과 거양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국민 안전 도모

- 8/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한 현장실습환경조성에 기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
- 9/ 산림공중진화대 운용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공중진화대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 해소

- 6/ 적극적 건강검진 실시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에 기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 7/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완화에 기여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행정능률 향상

- 10/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확산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01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성과 제고에 기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4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5%가 필요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 구직자는 높은 실업률(9.0%)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와 고용 불안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0%로 낮아 중소기업 인력의 수급 불일치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 청년층 선호 직장 비율('15년, 통계청): 국가기관(23.6%), 공기업(19.5%), 대기업(18.7%), 자영업(11.5%), 외국계 기업(6.7%), 중소기업(3.0%), 벤처기업(3.1%), 기타(13.9%)

이에 따라 일자리기획팀은 2016. 3. 9. 중소기업 인력 분야 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같은 해 5. 13.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상시 수급연계를 통한 “중소기업-구직자 상시 매칭연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소기업-구직자 상시 매칭연계 사업 추진계획 (2016. 5. 13.)
· 구직자 정보 DB 구축 및 제공, 맞춤형 교육 시행
· 중소기업 정보 DB 구축 및 대학 등과 협업
· 채용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 및 구직자 눈높이 맞춤형 수급연계

이후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7. 1. 24.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3월 16개 지역본부 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설치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다.

▼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식



구인기업 및 구직자 적극 발굴과 매칭을 통한 취업 연계

일자리기획팀은 2017년에는 정책자금 용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업 위주로 1,430개 구인기업을 발굴하였고, 2018년에는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용자사업 등을 통하여 검증된 고성장기업*, 글로벌 CEO 클럽** 등 우수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18. 4. 11. 우수기업 요청 공문 송부)을 통하여 확보한 우수기업을 추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9,653개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였다.

* 최근 4개 연도에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출실적이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매출 100억 원 이상)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기획팀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네이버 밴드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성화고 및 전문대 등 인력공급기관(이하 “특성화고 등”이라 한다)에 발굴한 구인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등의 취업지원관이 해당 구인기업에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직자를 발굴하였으며, 2018. 7. 18.부터는 구직자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구직자가 자유롭게 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전용 시스템(<http://job.sbc.or.kr>)을 신규 개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위하여 운영 중이던 시스템

또한, 일자리기획팀은 2018. 9. 6. 특성화고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매칭을 위한 구직자를 모집하는 등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고, 취업 관련 커뮤니티 등에 사업을 홍보하는 등 노력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647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일자리기획팀은 2018. 7. 18.부터 취업 연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신규 개발한 기업

인력애로센터 전용시스템을 통해 구인기업-구직자 간 1차 매칭을 한 후 각 지역본부의 일자리카플매니저가 구인기업-구직자 간 정밀매칭(2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취업 연계 진행절차



그 결과, 일자리기획팀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2년간) 9,653개 구인기업과 12,647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849개 기업에 2,645명이 취업하도록 연계하였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사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8. 1. 22.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주)A(사업 분야 골프웨어 접퍼 등)를 구인기업으로 발굴하여 등록하고, 2018년 7월 경 군부대 청년장병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패션업종에 취직을 희망하는 ○○○(패션디자인 전공)을 위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6월경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주)B(사업분야 무기화학 물질 제조)를 구인기업으로 발굴하여 등록하고, 2018년 10월경 군 부대 순회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화공업종에 취직을 희망하는 △△△(군자공고 디지털바이오테크 졸업)을 위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년 다수의 채용을 진행한 (주)C(사업분야 화장품 자동차 설비 제조)를 구인기업으로 발굴하여 등록하고, 2018년 12월 경 청년구직자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화장품 관련 업종에 취직을 희망하는 ◇◇◇를 위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장병 취업지원 기사



▲ 국방일보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전면광고



▲ 찾아가는 청년장병 취업희망버스



▲ 기업인력애로센터 추진 절차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기사



▲ 기업인력애로센터 광고



▲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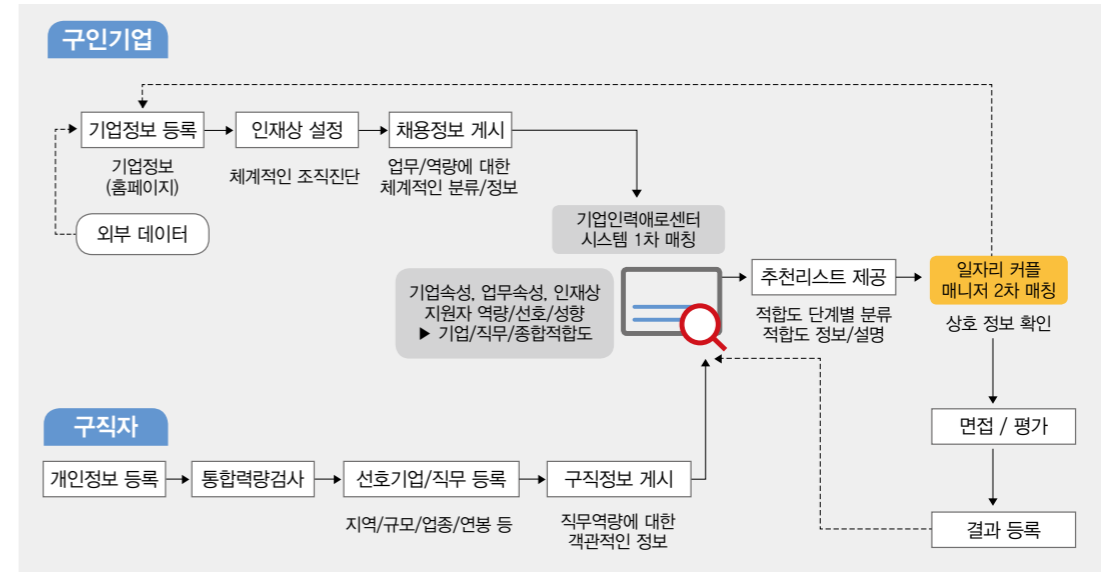
▲ 청년장병 취업지원 개요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청년장병 대상 직무교육 및 취업컨설팅을 통한 취업 연계

일자리기획팀은 2017년 12월 경 육군본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으로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 1. 31. 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일자리기획팀은 2018. 9. 27.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군부대 방문 교육을 26회 실시하는 등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장병 2,193명을 대상으로 총 93회에 걸쳐 집합 및 방문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자리기획팀은 2018. 8. 9.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청년 장병 6,032명에게 1:1 진로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등 2018년에 청년장병 등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총 12,057명에게 컨설팅을 실시(횟수 14,535회)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기획팀은 청년 장병 구직자 1,435명을 발굴하고, 541개 기업에 758명이 취업하도록 연계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연계

일자리기획팀은 2018. 5. 31. 기업인력애로센터 사업의 하나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 이수자 및 교육 수요생이 대기업 협력사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기획팀은 주식회사 B의 협력사인 24개 반도체생산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145명을 대상



▲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구직 매칭 프로세스



으로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이 중 78명을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등 11개 대기업 협력사인 257개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538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101개 구인기업과 456명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149개 기업에 302명이 취업하도록 연계하였다.

위와 같이 일자리기획팀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구인기업(9,754개)·구직자(14,538명)를 발굴하고 청년 장병 등에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총 3,705명이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카드뉴스_취업성공_청년 구직자

취업을 부탁해!

- 청년구직자가 말하는 중소기업 취업 그 후 이야기 -



청년 취업 지원 성공 사례 인터뷰
이이저엔탈 김재훈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청년 취업 컨설팅을 받고 이이저엔탈에 입사한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 이이저엔탈 3차대철

우리 회사는 oo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제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에 IT 정보기기나 사무가구 등을 렌탈하는 종합렌탈 기업입니다.

일거는 3년 길거는 14년까지
복지가 좋아
장기근속자가 많은
직원 중심의 중소기업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외부로 나가 고객을 마주하고 PC, 노트북, 프린터 같은 정보기기와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또, 제품 AS와 재설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의 꿈

특성화고에서 문화산업경영을 전공하고 일본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었어요.

일본은 실버세대여서 저같이 젊은 인재가 부족해 취업이 수월할거라 생각했었죠.



청년 취업지원 컨설팅이 내 마을 속에 들어왔다

그러던 와중 군 시절 상관이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청년취업컨설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취업컨설팅을 받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더 맞출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청년 취업지원 컨설팅은 나에게 취업감을 줬어!

기업에 매칭서비스가 정말 좋았던 것은 적성검사 후 기업매칭서비스를 통해 가장 잘 맞는 회사 딱 하나만 추천한 거예요. 구직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거든요.

취준기간이 적어도 3개월은 걸릴거라 예상했는데 컨설팅을 받고 1달도 안되어서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 찾았?"고 놀라 놀라하네요.



힘내라! 청년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거르면 그만 두려워 없을거라도 한국엔 할 수 있는 능력은 많게 봐는 간단히 알인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힘내세요!

그리고 기업에 이용하세요-파이팅!!



내 적성에 딱~맞는! 우수 중소기업 만나고 싶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job.sbc.or.kr
☎ 1899-3001



카드뉴스_취업성공_청년장병

취업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 청년장병이 말하는 중소기업 취업 그 후 이야기 -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취업 성공 사례 인터뷰
이이저엔탈김재훈 차대철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취업 컨설팅을 받고 전역 후 이이저엔탈김재훈에 입사하게 된 프로모션 디자이너 차대철입니다.



차대철

우리 회사는 oo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브랜드를 상대로 제품 디자인을 제안하고,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디자인에 맞춰 제품을 제작/생산하는 이유회사입니다.

여러 협력회사의 신뢰를 받고 있고 기반이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저는 이 회사에서 브랜드 대상 디자인을 제안하는 프로모션 디자이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 생각했던 디자이너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적성에 잘 맞습니다.



대철의 꿈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청년장병sos프로젝트가 내 부대 속에 들어왔다

중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 컨설팅트가 복무하던 군부대에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에도 멘토를 볼 수 있도록 부대에 상관이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힘내라! 장병들!

안녕? 후배들이!
내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응원 한마디 할게!
너희도 곧 전역하겠지.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취업 준비의 시간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야.
장병들아 힘내라!!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job.sbc.or.kr
☎ 1899-3001

국방전직교육원
☎ 031)760-9370
☎ 1588-9402



이것만큼은 우리 회사가 최고!!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십니다.

제품 입사했을 때 익숙하지 않았던 회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신 것과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ABC



청년장병sos프로젝트는 나에게 취업감을 줬어!

취업 컨설턴트가 1:1 맞춤 케어를 해주시며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멘탈관리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매칭 상황을 꾸준히 알려주셔서 전역 전 막연했던 취업걱정을 해소하게 되었고 취업준비에 소비될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군부대와 기업인력애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REVIEW

작성자 | **이혜룡**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 부장(전, 기업인력지원처 과장)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간디의 명언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이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뉴스에는 연일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는 2017년 2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존 구직자 중심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칭의 ‘정보·임금·숙련’ 3대 격차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일자리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실사를 통해 검증한 좋은 일자리 DB를 구축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통해 맞춤형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매칭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일자리매칭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2018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생산직이 아닌 안정적인 연봉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직·사무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고,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협력업체의 질 좋은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국방부 등과 협업을 통해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에 대해서는 대기업 협력사 취업을 연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자리 DB에 적합한 맞춤형 청년 구직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는 2018년 누적 기준, 구인기업 9,653개사 및

구직자 14,082명을 발굴하고, 1,512개 기업에 3,705명의 취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간디의 명언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이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품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새내기 청년들의 역동성을 믿고 힘을 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대한민국 청년! 중소기업 사장님! 화이팅!’을 힘차게 외쳐 봅니다. ☺

DIVISION

▶ 중소기업진흥공단_일자리본부 기업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

부서원 한마디



처장 김종균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1호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아이TEM을 발굴하느라 고생했던 날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청년 장병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보람과 사명감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해준 부서원들의 힘입니다. ☺



지부장 김상구

작년에 청년 및 청년장병 취업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했던 군부대에서 군 간부들이 해 주셨던 격려와 지원에도 크게 감동했는데, 이렇게 감사원 표창을 받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작은 초석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겠습니다. ☺



부장 이혜룡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성과 청년 구직자의 절박함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일자리매칭 취지에 공감해주신 일자리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대기업, 각 학교 등과의 열정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이바지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과장 지창훈

지역에서 근무하며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항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18년부터 기업인력애로센터 업무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나 보람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과장 이현중

작년 일자리기획팀에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청년 및 청년장병)간의 기대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취업박람회, 청년열차, 희망버스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인·구직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02

보유 부동산의 사회적 활용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성장에 기여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은 유휴 부동산의 일부를 창업보육센터 ‘IBK창공’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인 창업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이하 “미래사업팀”이라 한다)은 2017. 2. 15. “전략적 부동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 최초로 유휴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등 고객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은행 업무에 부수하여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회사에 입주 공간을 유상 제공하는 등 임대수익사업을 영위해왔으나 보유 부동산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 없었다. 한편, 2016. 6. 28.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임대업 영위 규제가 완화되었고,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 증가로 유휴 부동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사업팀은 2017. 2. 15. 보유 부동산을 핵심·필수·전략·비수익 자산 등 가치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수익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유휴 공간의 일부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필요시설로 제공하는 “전략적 부동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필수자산 등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잠재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재건축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검토하며, 유지비용이 과다하거나 향후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비수익 자산은 매각하는 등의 방안임

그런 후 미래사업팀은 위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7. 2. 28. “점포운영 효율화 전략 및 유휴 부동산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 해 5. 23. 소규모 기업에 업무 공간 무상 제공 외에 교육·컨설팅·네트워킹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공단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 어린이집 공간



1. 프로젝트 참여직원
2. 어린이집 내부전경
3. 근로복지공단협약식
4. 마포 창업보육센터 '창공' 전경

으로 제공하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래사업팀은 2017. 6. 14.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의 벤처보육사업체계*를 현지 확인한 후 보육서비스를 전문가(창업기획자)에게 맡기는 등의 운영방식을 중소기업은행과 창업기업이 상생(Win-Win) 가능한 창업보육센터 모델로 구체화하였다.

* 벤처캐피탈이 사업성 검토를 하여 투자한 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은 벤처캐피탈·창업기업에게 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기업에 대출을 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벤처캐피탈은 창업기업 보육을 전담하고, 창업기업은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자본율이 희석되는 자본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창업 초기의 어려움(Death Valley)을 극복하는 방식임

위 방안은 중소기업은행이 2017. 5. 10.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모델로 구상한 “동반자 금융”* 사업계획에도 부합하였다.

*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과거의 공급자 금융에서 동반자 금융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창업기업 생존율 제고)·재도약(글로벌·디지털화·우수인재 유치 등 기초체력 강화)·선순환(중소기업 졸업)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임

이후 미래사업팀은 2017. 7. 4. 유휴 부동산의 전략적 무상 임대를 통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24.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창업기업이 자금 부족과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투융자 등 금융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의 멘토링 등 비금융부문까지 지원하는 체계적 보육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유망기업 선별역량 제고와 인수합병(M&A) 등의 전략적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창업보육센터인 IBK창공(創工)을 2017. 12. 19. 위 은행 마포지점에 1호점, 2018. 10. 1. 위 은행 구로지점에 2호점을 각각 설치하고, 이에 참여한 A사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다가 2018. 10. 1. 구로 IBK창공 육성기업에 선정된 이후 2019. 4. 5. B사 등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2019. 4. 8. 감사일 현재 까지 60개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과 금융(66억 8천만 원)·비금융(472건)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64억 8천여만 원(위 은행 투자금

17억 8천만 원 포함)의 투자를 유치하고 2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미래사업팀은 유휴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실행업무는 2017. 7. 4. 나눔행복부에, 창업보육센터 실행업무는 같은 해 9. 7. 창업벤처지원단(현 창업벤처기업부)에 이관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도 미래의 우수고객 유치*와 2019. 4. 8. 관련 영업방법 특허 출원** 등의 성과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조업에 치중된 여신(58.5%, 은행권 평균 35.7%)의 다각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의 이점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60개 육성기업 중 12개 기업이 중소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전환함
** ‘창업기업 진단에 기반한 가치평가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치 및 방법’ BM(Business Method)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2017. 8. 18. 부지 확보 문제로 추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인천광역시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전용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2018. 3. 26. 위 은행 남동공단지점 등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개소하여 2019. 4. 8. 현재 원아 58명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2017. 9. 25.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 등으로 협업하기도 함
**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와 친환경·방염 건축자재 사용, 법적 기준(1인당 면적 2.64㎡, 만 4~5세 기준 이동당 교사 비율 1:20) 대비 우수한 여건(1인당 4.97㎡, 1:10), 심야 연장 운영 등 중소기업은행 직장어린이집과 동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함

그 결과,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단순한 자금 공급자 역할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보육공간 무상 제공과 투자·컨설팅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보유 부동산의 사회적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 무상임대 등에 따른 기회비용은 IBK창공의 경우 임대 수익 3억 5천여만 원 등 연간 22억 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1억여 원으로 추산됨

▼ 남동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식



REVIEW

작성자 **박진현** |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장

‘국책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016년 말, 기업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운영할 당시 우리가 마주친 고민이었습니다. 영업점 업무 공간 외에 방치되어 있는 꽤 많은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지는 의견도 있었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휴식 공간, 탈의실 등으로 활용하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팀은 김도진 은행장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동반자 금융’의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단순 자금공급자를 넘어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중 금융 이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동반자’가 되어야 향후 100년 은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동반자 금융’의 사상은 기업은행의 업무처리 전반에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휴 공간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공공적·사회적 활용’을 경영진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간’과 ‘중소기업 직원 전용 어린이집’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간’의 경우, 단순히 공간 제공만이 아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의 본거지인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선진 노하우를 얻고자 했습니다. 2017년 6월의 실리콘밸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벗어난 신천지였고, 공간 활용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지의 벤처캐피탈과 창업기획자(Accelerator)들도 국책은행인 IBK가 창업기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당시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창업 육성 플랫폼인 ‘창공’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일상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기업은행 직원들도 모두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일반 기업들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를 꺼리는 상황에서 고객을 위한 보육시설을 여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이나 운영 실무상의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중소기업에 있고 그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이라는 실무진의 굳은 의지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어린이집 사업은 어렵사리 첫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자 관련 부서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발굴하였고, 국내 최고 수준인 기업은행 직장어린이집에 필적할 만한 높은 기준으로

운영업체를 선발하여 예상보다 이른 시간 내에 남동공단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 후 첫 학기 원아들을 모집하고 남동공단 지역 지점장들로부터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정말 고맙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들을 때마다 말로는 형언하기 힘든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책은행의 역할은 제한이 없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낀 해답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은행에 가둘 필요도, 공공기관에 가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의 존재 이유인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존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이를 명심하도록 할 것입니다. ‘칭찬이 목표인 사람은 기준을 맞추고, 개선이 목표인 사람은 기준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일조했기를 기원해봅니다. ☺

DIVISION

▶ 중소기업은행_전략기획부 미래사업팀

부서원 한마디



팀장 박진현

구체적인 업무 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효율성·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IBK의 차별화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치를 꾸준히 실행하고자 합니다. ☺



차장 이승진

기업은행 설립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부동산 운용 전략’을 담당하게 되어 처음엔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용 효율성과 사회적 역할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늦게까지 회의하면서 고생했던 노고가 이번에 큰 결실을 거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직원 모두에게 좋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대리 이지웅

공유경제 관점의 접근방법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장을 찾아 다니며 많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같이 고생했던 팀장님 포함 팀원들과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장 고광현

‘보유 부동산 TF’를 통해 우리 은행의 내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분석할 수 있었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향후 최적의 수준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차장 김연화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비록 길지 않았지만 동료애와 애사심이 제고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03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건립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



“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성공적으로 건립·운영하여 모로코의 자동차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는 카사블랑카 지역에 2년제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이하 “카사블랑카 훈련원”이라 한다) 건립사업” (사업기간 2010~2013년, 총 사업비 미화 600만 달러)을 수행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09년 3월 산업개발 계획에 따라 연간 4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동차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분야 기술 인력 7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후 2009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에 자동차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건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는 카사블랑카 훈련원 건립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모로코 내 기존 자동차 직업훈련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교육훈련시스템이 단순 조립 및 수리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모로코의 경우 2009년 당시 전국 476개 공공직업훈련 기관 중 265개 센터에서 자동차공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 조립 및 수리 교육에 치중하였을 뿐 아니라 취업률도 약 50%에 불과

그리고 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카사블랑카 훈련원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원에서의 교육(10주)과 산업현장에서의 실습 훈련(10주)을 교육기간 내 계속 반복하도록 계획하고, 훈련생들의 실습현장에 교사들을 파견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에 반영하는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훈련을 병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 모로코사무소는 한국 파견전문가를 교사선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직접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용 교재를 만들게 하여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 효과 등을 높이었으며, 기업 재직자 훈련 등 특별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모로코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체



▲ 국무총리 및 KOICA 이사장 모로코 직업훈련원 방문

수익금으로 카사블랑카 훈련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취업지원 훈련(구직자 및 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업 연계 보수교육 및 훈련(기업 재직자 대상), 직업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150개 직업고등학교 연계)을 별도로 운영 중

그 결과 2014년 2월 개원한 카사블랑카 훈련원은 다른 모로코 직업훈련원과 달리 자동차 기술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및 양질의 교사 확보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바로 훈련생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하였고, 이에 현지 기업들도 카사블랑카 훈련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 카사블랑카 훈련원의 훈련생 중 일부는 졸업 전에 관련 업체에 취업이 확정되기도 하여 2018년 1월 기준 취업률이 92%에 이르고, 입학경쟁률도 2016년 27대 1(정원 90명), 2017년 6대 1(정원 36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음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7년 1월 훈련성과 등이 저조한 기존의 케니트라 자동차직업훈련원*을 카사블랑카 훈련원과 통합하였고, 같은 해 9월 카사블랑카 훈련원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교육훈련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탕제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자체 건립하는 등 카사블랑카 훈련원이 모로코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벤치마킹을 위해 코이카 사무소를 방문한 세네갈 노동부 직원들

* 2012년 2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어 2014년 2월 부터 운영되었으나 훈련내용과 성과가 저조하여 인기가 없었음



또한, 현재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선진 공여기관은 카사블랑카 직업훈련원을 성공적인 직업훈련원으로 평가하여 향후 개도국의 직업 훈련 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등은 사절단을 파견하여 카사블랑카 훈련원의 운영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ODA 사업 사례로 평가되어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REVIEW

작성자 **정희진** |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사무소(前 모로코사무소장)

‘사업의 성공 이면에는 모로코 정부 측 노력뿐 아니라 성공 동력을 제공하고 키워나간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한 우리 사업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돕는 개발 협력의 성공 여부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주도적으로 발휘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원이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또 이를 공유할 기회가 주어져서 새삼 보람과 감회가 크게 다가옵니다. 모로코 노동부장관과 처음 만났던 2008년쯤, “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이 몇 개의 금메달을 땄는지 아느냐?”라고 대뜸 내게 물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모로코에 자동차직업훈련원을 건립해 달라”라고 요청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었지만, 당시 유럽차가 득세하고 있는 모로코에서 그것도 경제수도인 카사블랑카에 모로코 최초의 자동차 직업훈련원을 한국이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큰 사업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한국기

숭교육대학교 및 모로코 노동부와 함께 각자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우수교사 확보, 훈련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 제공 및 무상교육, 졸업생 대비 100% 취업 목표, 2년제 기술대학으로의 인증 등은 절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우리 제언을 법제화하고 자동차협회, 산업체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2015년 첫 2년제 졸업생이 배출될 때쯤에는 위 목표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모로코 자동차직업훈련원은 자동차직업훈련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지역에 훈련원을 확장시키고 있고, 영국, 일본, 미국 등 공여국과 국제기구들뿐 아니라 세네갈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도 위 훈련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 이면에는 모로코 정부 측 노력뿐 아니라 성공 동력을 제공하고 키워나간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한 우리 사업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고, 특히나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로 선정되어 우리 사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DIVISION

▶ 한국국제협력단_ 모로코사무소

부서원 한마디

과장 라갑제



모로코 직업훈련원 사업 종료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련생 대부분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범사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니 모로코 측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이카에서 지원한 3D프린터를 자동차부품 제작 실습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과 직업훈련원 건물 외벽을 한글로 디자인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

대리 김한빛



모로코 자동차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훌륭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 성과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 이지현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넘어 직업훈련원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나아가 성과가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전임 홍은혜



한국의 우수한 직업기술교육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함께하는 번영을 이루기 위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국 정부, 민간분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노력이 이런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상생의 개발 협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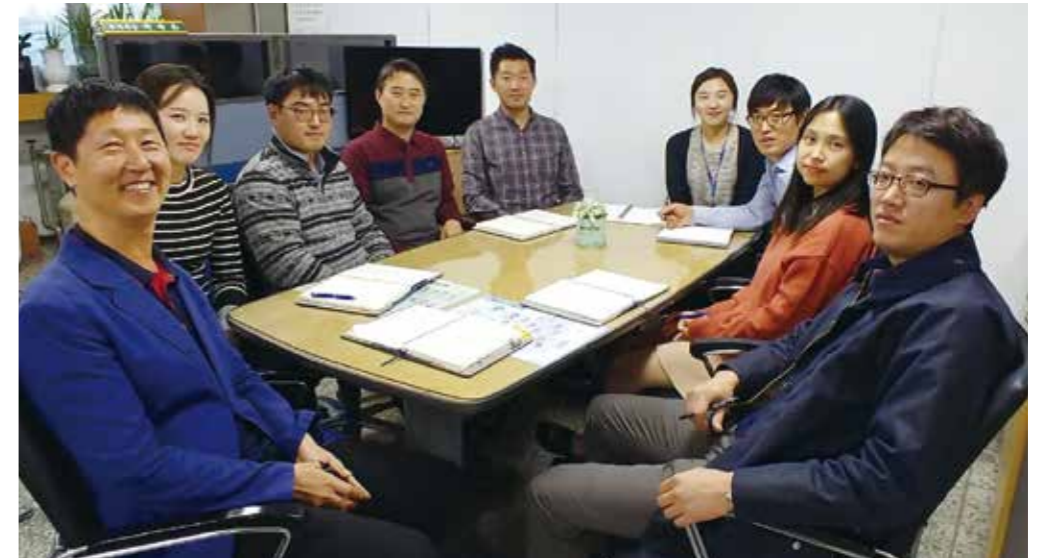
04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분 추징 등으로 세입증대 등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국 부과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국 부과과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소 납부분을 추징하고,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및 세원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관련 규정 및 인터넷 신고 납부 현황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구세(區稅)로서 2017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중 23.4%**를 차지하는 중요 세입원이며, 부동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에 1천 분의 2의 세율을 적용(정률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그 밖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 원(정액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해마다 납세자의 인터넷 신고·

납부***가 증가(2017년 기준 영등포구의 인터넷 신고 건수 비중은 74.9%)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함

** 2017년 구세 전체 세입 114,710백만 원 중 등록면허세(등록분)는 26,879백만 원으로 구세입 비중에서 23.4% 차지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자료에 대한 일제 조사 추진 경위와 성과

「지방세법」 제2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신청서 부분(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된 등기·등록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과과는 2011년 1월 이후 등록면허세 수납사항과 등기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의 ‘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는 정액분을 제외하고 정률분만 발취하여 점검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부과과는 ‘납세자 신고자료’ 기반이 아닌 대법원 통보자료의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록 시 정액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2017. 11. 7.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자료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영등포구 부과과의 관내 각 동 담당(13명)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 중 인터넷 신고분 4,438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기 내용’과 ‘등록면허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영등포구 부과과는 일제조사 기간 동안 A주식회사가 2015. 10. 29.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접수일자 2015. 11. 2., 청구금액 1,667억여 원)를 하면서 정률세(세율 청구금액의 0.2%)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분(등기종류 기타, 세액 7,200원)으로 등록면허세를 과소신고·납부한 후 등기한 사례를 적발하여 2018년 2월 533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건, 557백만 원의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였다.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으로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 방지에 기여

그리고 영등포구 부과과는 2018. 1. 19. 관할 법원장 및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등록면허세 과소납부 등기 사례를 안내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2. 14. 서울특별시에 세무종합시스템상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와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5개 자치구에서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종합시스템의 등록면허세 기능 개선 사항]

- 세무공무원의 등록면허세 신고분 검토 시 취득·등록원인 상세내역을 확인
- 납세자가 이택스(인터넷납부시스템) 등록면허세 신고 시 상세 등록 원인 입력 항목 추가
- 대법원 통보자료 열람 시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취득·등록원인 조회 항목 추가
-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확인 기능 추가

* 정률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정액세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00902 변경’, ‘00999 기타’ 등록원인의 등록면허세 과세 처리 시 ‘주소변경’, ‘개명’ 등 상세 등록원인을 추가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고지서 및 납부서에 표시하여 등기 시 담당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및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영등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7월 현재 등록면허세 총 60건, 35백만여 원을 추징하였고 성동구 등 나머지 자치구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영등포구 부과과는 대법원 통보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등록면허세 관련 납부자별 신고·납부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과소 납부분을 추징하고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무종합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파함으로써 세입 증대 및 세원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가)

세무종합시스템의 등록면허세 기능 개선 화면

과제명	과제 내용
세무공무원의 등록면허세 신고분 검토시 등록원인 상세내역 확인 가능	대법원 통보자료 열람 시 세무종합시스템상의 취득·등록원인명 조회 가능

REVIEW

작성자 **허찬영** | 영등포구청 법인조사팀장

“헌신적인 직원들의 수고로 30건의 착오 신고에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과소 신고된 사례를 발견하여 총 약 5억 7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서 그간 우리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범사례로 채택되고 감사원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한 일인데 표창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은 다른 2개 팀과 함께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부족하게 납부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방문 신고는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 직원이 즉시 검토한 후 처리하는 반면, 인터넷 신고는 우선 납세자가 신고 금액대로 납부하고 사후에 전산 검증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신고는 신고 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등록면허세 전체 신고의 80%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산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들이 별다른 확인 없이 처리하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분이 과연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방문 신고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16만



6천 건 중 말소 등기 등 단순 확인 가능한 16만 1천 건을 제외한 나머지 4,438건에 대해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건건이 발급하여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에 이번 일제 조사까지 추가되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헌신적인 직원들의 수고로 30건의 착오 신고에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과소 신고된 사례를 발견하여 총 약 5억 7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별개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우리 구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 지방법원에 등기원인에 따른 철저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세무업무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에도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우리 부서 담당 직원들이 등록면허세 업무 추진 시 항상 철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업무들에 비해 사소하여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약 5억 7천만 원의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고 같은 일을 하는 서울시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담당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루어낸 성과는 늘 조세저항에 맞닥뜨려 지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는 부서 전 직원의 합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함께 고생한 선·후배 동료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㉞

DIVISIO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재정국 부과과

부서원 한마디

주무관 전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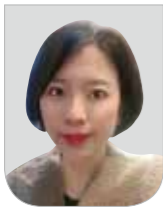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있어서 항상 많은 바 임무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론 높이 날아서 멀리 보기보다는 낮게 날면서 자세히 보아야만 볼 수 있었던 우리 업무의 특성과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자긍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서용경



항상 청렴과 성실함을 강조하시는 부과과장님의 지휘로 모든 부서원들의 협동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 성과에 방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세무부서를 일궈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박은진



다른 세목과 달리 소액인 등록면허세(정액)는 소홀하게 관리되기 쉽습니다. 우리 팀은 세무전산시스템과 매달 점검해온 자료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전체 등기 자료를 조사하여 수십 건의 착오 신고건을 찾아내어 상당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합니다.

주무관 전윤상



‘Break the Frame! (틀을 흔들어라)’
국내 모 프로야구단의 2018년도 구호입니다. 모범사례로 선정된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는 위 구호처럼 관행적인 기존 업무의 틀을 새로운 시각으로 흔들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어 소홀하기 십상인 신고분 정액 등록면허세 5년 치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발굴해 낸 약 5억여 원의 세수는 세무 공무원인 저에게 남다른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업무환경을 창의적으로 비틀어보고 팀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원 한마디

주무관 배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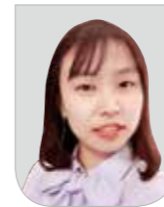
역발상에 의한 업무 추진! 등록면허세는 특별한 세원 발굴이 어렵고 세원 발굴이 되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한 결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세원 발굴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안국현



부서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와 누수 없는 효율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진원



처음 맡은 업무로 서투른 저에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추진한 업무수행 방식과 팀원 모두가 역할 분담하여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모두의 최선이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감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05

적극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으로 국세 징수 성과 거양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은 국세 징수의 성과를 거양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중 부지방국세청(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이하 “추적 2팀”이라 한다)은 2017. 10. 16. 국세 체납자 ○○○[주식회사 A 전 대표이사, 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2018. 3. 1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3차례에 걸쳐 은닉재산 수색을 위한 탐문 조사 및 수색을 실시하였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추적 2팀은 2018년 3월 위 제보내용을 확인하면서 체납자가 중부지방국세청 관하 세무서에 155,368,250원(평택세무서 154,339,210원, 동안양세무서 1,029,040원)과 대전지방국세청 관하 천안세무서에 179,169,900원 등 계 334,538,15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 출국이 잦아 평택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2017. 4. 28.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제보자로부터 체납자가 비밀금고를 두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추적 2팀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수색 및 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체납자 실거주지 파악*을 위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을 위한 사전조사

가. 제보내용 확인

중부지방국세청에 2017. 10. 16. 접수된 체납자 관련 제보내용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였고, 아들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 체납이 있다는 것이다.



▲ 사전 간담회 개최 모습

* 체납자의 주소지는 부동산 양도시점인 2015년 8월경 천안시 서북구에서 2018년 3월 경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로 변경. 그런데 위 부서가 탐문조사를 하면서 위 주소지는 각각 체납자의 형과 여동생의 주소지로 체납자가 그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위장전입 사실 확인

나. 체납자 실거주지 탐문조사

위 결정에 따라 추적 2팀은 2018년 3월 경(날짜 모름) 체납자의 가족사항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 아들(△△△)의 주소지인 안양시 B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이 안양시 동안구 C동에 있는 ㄹ아파트를 임차한 사실과 체납자의 모친 또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적 2팀은 체납자가 △△△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 3. 13. ~ 3. 21. 3차례에 걸쳐 잠복 등을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탐문에서 체납자의 연락처와 체납자 아들의 주소지가 기재된 고급승용차의 발견 등을 통해 체납자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차 탐문에서 잠복을 통해 실제 차량 이용자가

체납자임을 실물로 확인한 후, 3차 탐문에서 체납자 실거주 추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의 매물 부동산을 방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체납자가 위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을 재차 확인하는 등 체납자가 아들 △△△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은닉재산 수색 과정 및 결과

위 3차례에 걸친 탐문조사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한 추적 2팀은 2018. 3. 22. 평택 세무서로부터 체납자의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집행문을 발부받아 같은 해 3. 26. 오전 10시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수색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고 수색을 시작하였다. 우선 추적 2팀은 체납자에게 안방에 있던 금고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체납자가 연 금고 안에서 현금 4,287만 원, 치약케이스로 밀봉한 골드바 5개, 상품권 34매 280만 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골드바의 순도 및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평택세무서 체납액 154,339,210원 등의 총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납자에게 추가 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승낙을 받은 후 추가 수색을 하였다. 그리고 추적 2팀이 추가 수색하는 동안 체납자가 거실 벽 쪽에 교묘히 설치한 비밀서랍장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비밀서랍장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으나 추가로 거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비밀서랍장 안에 은밀히 숨겨놓은 현금 5만 원권 500장 계 2,500만 원을 발견하여 압류하는 등 계 213백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 조치하였다. 또한, 추적 2팀은 체납자가 평택 세무서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국세청 관하 천안세무서에 체납한 사실(양도소득세 175,970,320원 등 계 179,169,900원)을 고려하여 수색 현장에서 천안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조서를 받아 향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압류물건을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추적 2팀은 2018. 3. 26. 수색 당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체납자와 동안양세무서에 동행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평택세무서 및 동안양세무서)



체납액 일부를 압류한 현금 67,870,000원으로 자진납부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3. 29. 골드바 매각(3개 2kg, 95백만 원에 매각) 등을 통해 평택세무서 체납액 154,339,210원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 3. 30. 골드바 등 잔여 압류물품(골드바 2개 1kg, 상품권 34매 280백만 원)을 천안세무서에 인계하여 체납액에 일부를 납부(체납액 179,169,900원 중 5천만 원 상당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징수의 성과를 거양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

* 추적 2팀은 체납자를 2018. 6. 18. D지방검찰청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고발조치



▲ 수색집행 과정 교육자료



▲ 수색 당일 잠복 위치



1. 수색결과 압류물품
2. 수색결과 안방금고에서 발견된 골드바 3Kg
3. 수색당시 강제개문

REVIEW

작성자 **서윤희** | 국세청 징세승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NO’를 거꾸로 하면 ‘ON’이라는 단어가 되듯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닫힌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아낸다면, 벽을 넘어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추적과가 되지 않을까 다짐해봅니다.”

고의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시점에 모든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상히 여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추적조사 수색 업무를 계획하면서 ‘기존 업무 만 해도 바쁜데, 야근까지 해야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나? 하던 대로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요즘 누가 집 안에 돈을 숨겨놓을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의구심으로 고민이 날로 커졌습

니다. 체납자의 지능적인 면탈 행위로 인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위해 잠복을 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시간 내에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므로 많은 노력이 예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 팀 구성원 모두가 나섰습니다. 찾은 야근과 시행착오 속에서 팀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체납자와 가족들의 주소지 변동 이력 등을 파악한 후 국세청 내부자료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열람, 동주민 센터 면담 등 다양한 관계기관 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례 잠복·탐문·미행 등을 통해 실 거주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은닉재산을 찾아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팀 구성원들의 신념과 잠복·탐문 등 어려운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사원에서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후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강제 개문 하여 수색한 결과 안방 금고에서 현금 4,287백만 원, 치약케이스로 밀봉한 골드바 5개 (3kg), 상품권 34매(280만 원), 고급시계 3점을, 거실 비밀서랍장에서 5만 원권 500장을 추가로 발견하여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직은 미진한 점도 있고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은닉재산을 찾아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팀 구성원들의 신념과 잠복·탐문 등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사원에서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부분 불가능하리라 생각해 ‘NO!’라고 단정지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O’를 거꾸로 하면 ‘ON’이라는 단어가 되듯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닫힌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아낸다면, 벽을 넘어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추적과가 되지 않을까 다짐해봅니다. ☺



DIVISION

▶ 국세청_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2팀

부서원 한마디



팀장 이해중

추적2팀장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색으로 성과를 이룬 팀원들의 공로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원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



팀원 윤재웅

제가 추적2팀 근무 당시 거둔 수색 성과를 감사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추적2팀이 모범부서로 선정되었다니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팀장님 이하 팀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이룬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추적2팀 화이팅!!! 🙏



팀원 하용홍

중부지방국세청 추적2팀 팀장님과 직원들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수색 장소에 잠복하고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고한 덕분에 이번에 큰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례를 계속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조세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적2팀 파이팅! 🙏



팀원 한호숙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능'이라는 닫힌 마음을 버리고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끊임없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낸 결과, 팀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고 뜻밖에 모범사례로도 선정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

부서원 한마디



팀원 서윤희

추적과에서 처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다양한 업무수행 기법을 알려주어 수색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납세의식을 성립하는 데 이바지하여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팀원 임관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수색은 그러한 아쉬움을 날려주는 시원한 한 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팀원 송준호

업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려주시고 챙겨주신 팀원분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팀원분들 모두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

06

적극적 건강검진 실시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에 기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 구강검진 및 판정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는 노인건강검진에서 소외되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이하 “안산시 보건소”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등에 따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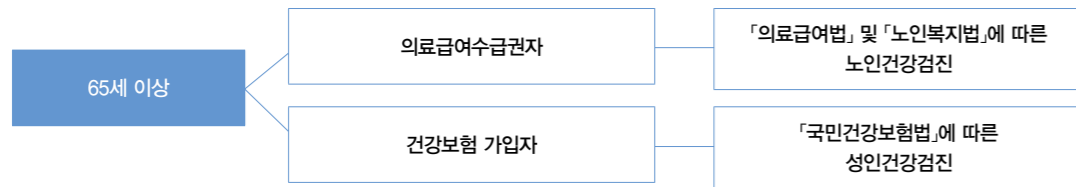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

조에 따라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 1981. 6. 5.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2005년부터는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지자체로 이양

이와 같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노인건강검진사업 실시 현황을

[그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근거 법규



살펴보면, 전체 228개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만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504,367명 중 4,985명(수검률 2.0%*)만이 검진을 받는 등 수검률도 저조하고 이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었다.

* 2년 주기 1회 이상 실시, 2017년도 출생연도 출생자 243,859명 기준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등 노인건강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안산시 보건소는 경기도지자체 중 유일하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건강권 및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인건강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첫째, 매년 ‘어르신 건강검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노인 특성을 반영한 치매 및 우울증 검사, 골밀도 검사, 성병(매독) 검사 등을 추가하였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출생연도를 홀수 · 짝수로 나누어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

둘째, 안산시 보건소는 관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우편을 통해 노인건강검진

사업을 안내한 후 직접 전화를 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경로당·지역신문·전광판·반상회보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 홍보를 통해 노인건강검진사업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검진을 통해 설문조사, 치매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하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인수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접수 및 검진상담

넷째,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한 후 15일 이내 검진 결과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검진 대상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안산시 보건소는 노인건강

구분	연계내용	2차 검진 및 연계
간질환	2차 검진: HCV Ab	임상병리실 및 의료기관
고혈압·당뇨	고혈압·당뇨의심자	통합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골다공증	골밀도 측정 결과 (-)2.5 이하자 관리	의료기관
결핵	활동성 미정 대상자 결핵실 등록 및 관리	결핵실
치매	치매 고위험군 치매정밀검진	치매관리사업 및 의료기관
우울증	우울증고위험군(10점 이상)연계 의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구강	치료 필요 대상자	치과실 및 의료기관
비만 등 건강위험요소	BMI 25 이상(단위: kg/m ²) 영양상담	금연, 절주, 영양상담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기타	신장 기능 이상, 이상지질혈증 등	진료 및 의료기관

검진 이상자에 대해 위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2018년부터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검사결과를 설명해주는 서비스 실시

이와 같이 안산시 보건소의 적극적인 노인건강검진 실시로 2017년 말 현재 안산시 관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5.6%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 55개 지자체 중 1위이며 안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54개의 평균 수검률이 6%인 것에 비해 49.6%p 높고, 228개 지자체 평균 수검률 2%에 비해 53.6%p 높다. 이와 관련, 안산시 보건소가 매년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소변검사, 혈액검사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족도가 90.0~9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안산시 관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상당수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 상담



▲ 어르신 건강검진 보도자료

REVIEW

작성자 **백채인**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여러 팀과의 협의를 거쳐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하였고, 검진일에는도우미를 배치하여 1:1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자들은 고령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얼른 죽으면 되지... 힘들게 건강검진은 왜 받아? 필요 없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라 검진율은 낮았고, 사업 담당자들의 피로감은 누적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공직 내에서 처리하게 되는 업무 대다수가 법률과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팀과의 협의를 거쳐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하였고, 검진일에는도우미를 배치하여 1:1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해드렸으며, 시력과 청력이 저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해드렸으며, 시력과 청력이 저하 되셨거나 무학(無學) 어르신께는 일일이 검사지를 읽어드리는 등...”

되셨거나 무학(無學) 어르신께는 일일이 검사지를 읽어드리는 등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하고 다양한 검진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검진율 50.5%로 전국 최고 수검률까지 향상시켰습니다.(전국평균 수검률 2.04%) 그리고 실제 검진자 중 87.3%가 건강 이상자로 나타

남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검진 항목별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산시의 ‘대상자 중심의 노인

건강검진 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전국보건소에 전파될 수 있게 해 준 감사원에도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유도로 취약계층의 의료건강권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

DIVISION

▶ 안산시_ 상록수보건소 · 단원보건소

부서원 한마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부서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안산시 2개 보건소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 주시고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백채인

‘어르신 건강검진서비스’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상자 중심 건강서비스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여러 직원과 여러 팀의 협업의 결과로 이번에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사업의 릴레이 주자로서 배턴을 이어 받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단원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최선주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건강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와 그 사업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여러 부서와 팀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단원보건소 담당주무관 김재희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모범사례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07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완화에 기여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은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행정 처리 기간 단축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이하 “위 부서”라 한다)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 등 지역 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 10. 24.과 같은 해 10. 28. 양주시 관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는 기존에 분할되어 있던 지면을 새로운 지번으로 합병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건의서를 위 부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 A 주식회사의 경우 약 5억 원, 주식회사 B의 경우 약 4억 원의 비용 발생을 주장함

구 「부동산등기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 개최 모습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심의 모습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등기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채권자의 양해를 받아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였다가 새로운 등기를 생성한 다음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여러 개의 지번이 하나의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되었을 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에 재설정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보험 수수료까지 부담하여야 하자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양주시에 요청한 것이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채권최고액의 1%),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등기 수수료(부동산마다 15,000원) 및 법무사 업무 대행 비용 등

이에 따라 2013. 10. 29. 위 부서는 근저당권 말소 후에 재설정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축물 준공 처리도 할 수 없어 등기 설정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 행정처리 및 기업의 생산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권자와 소유권 외 근저당권 설정번호 및 설정일이 동일하면 신규 조성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하였다. 그런데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토지개발사업 완료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그 다른 등기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위 부서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부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동일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으로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위 부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등 근저당권자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해당 토지 위의 공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남겨두었다가*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보증보험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 당초 근저당권은 토지와 토지 위 건물 모두에 설정되어 있었음

또한, 2016. 5. 11. 양주시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C조합으로부터 앞선 내용과 유사한 기업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출받게 되었다.

그러나 C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두 사례와 달리 해당 토지에 공장 건물이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모습




없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부서는 기업불편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2018. 2. 22. 경기도가 같은 해 3. 29. 주최할 예정이던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의 발굴과제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간소화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22.에는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행정처리 지연 등 당시 등기요건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규정 개정을 재차 건의하였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을 통해 위 부서의 규정 개정 건의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2018년 4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겠다”라며 기존의 불수용 의견을 일부 수용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4.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를 수반하지 않고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서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이와 같이 위 부서는 기업불편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이 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기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폐지되는 등 등기신청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표]와 같이 기업의 근저당권 재설정 관련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미발생,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절감

[표]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에 따른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비교

구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제정 전	채권최고액의 1%	채권최고액의 0.2%	등록면허세액의 20%	부동산마다 1만 5천 원
제정 후	면제	부동산마다 6천 원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모범부서·적극행정의 혁신·불편 해소

REVIEW

작성자 **송득한** |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장

“불합리한 규제라는 사실을 우리 시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 방문과 설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부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2018년 12월 4일 마침내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의 규제를 개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개 기업으로부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새로 지적공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막대한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및 보증보험료 수수료가 발생할 예정이라 이에 대해 기업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업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에 「등기규칙」을 개선하도록 건의 하였지만, 대법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다른 등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소관 기관인 대법원에 다시 건의했다.”라는 답변만 통보받는 등 건의 내용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간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인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근저당권자의 협조만 있다면 제도개선 없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무사 및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건물에만 설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KBS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경 A우유 양주 신공장이 2019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다시금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앞선 사례와 달리 기존 건물이 없어 대안 제시가 불가하였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다시금 경기도,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라는 사실을 우리 시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 방문과 설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부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2018년 12월 4일 마침내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기 말소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처리 기간이 30일 단축되는 것은 물론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및 보증보험료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법 규정을 찾아보았을 때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법률 용어도 낯설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을 설득하여 법령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과가 ‘규제개혁이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규제개혁의 본보기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

DIVISION

▶ 양주시_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부서원 한마디



과장 김남권

규제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팀장 송득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담당자 스스로가 만능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야 할 법령도 많고 사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임을 증명도 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상황에 필요한 지혜와 개선할 용기를 갖추고 끊임 없이 헌신하는 만능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무관 고승철

규제개혁팀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규제개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느꼈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하고 규제개혁팀의 팀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무관 이영섭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규제개혁팀에서 하였는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늘 고민하는 과장님과 팀장님을 보며,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개선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08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조성에 기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



“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는 2018년부터 전국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에게 졸업 전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료 공장 제품 적재기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월 전주시 A고객콜센터에서 현장실습 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등 산업재해로 현장

실습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불안이 고조되는 실정이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직업계고 학생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

* 교육부는 2018년부터 현장실습 제도를 학습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직업계고 학생의 근로자 신분을 배제함

그럼에도 위 부서는 2018. 5. 9.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친 B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그림 1]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추진 절차

교육계획 수립 및 협조 요청	(공단→교육부) 교육계획 수립 및 협조 요청
안전보건교육 안내	(교육부→지방교육청)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교육 일정 파악	(지방교육청→직업계고) 교육 안내 및 일정 취합
교육 일정 제출	(교육부→공단) 교육 일정 제출
교육 일정 협의	(공단→직업계고) 교육 일정 및 실습실 점검 지원 여부 협의
안전보건교육 신청	(직업계고→공단) 협의된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회원가입 후 “직업계고 예비산업인력 교육” 신청
교육 및 안전점검	(공단→직업계고) 전문강사 및 실습실 점검 지원
이수증 출력	(직업계고) 안전보건교육포털 메뉴 “이수증 출력”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같은 해 5. 16. 교육부 업무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위 부서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와 함께 2018. 5. 23. 회의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587개 학교, 3학년 학생 104,87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실습실 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같은 해 7. 3.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방학 전 7월부터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산업안전공단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학교별 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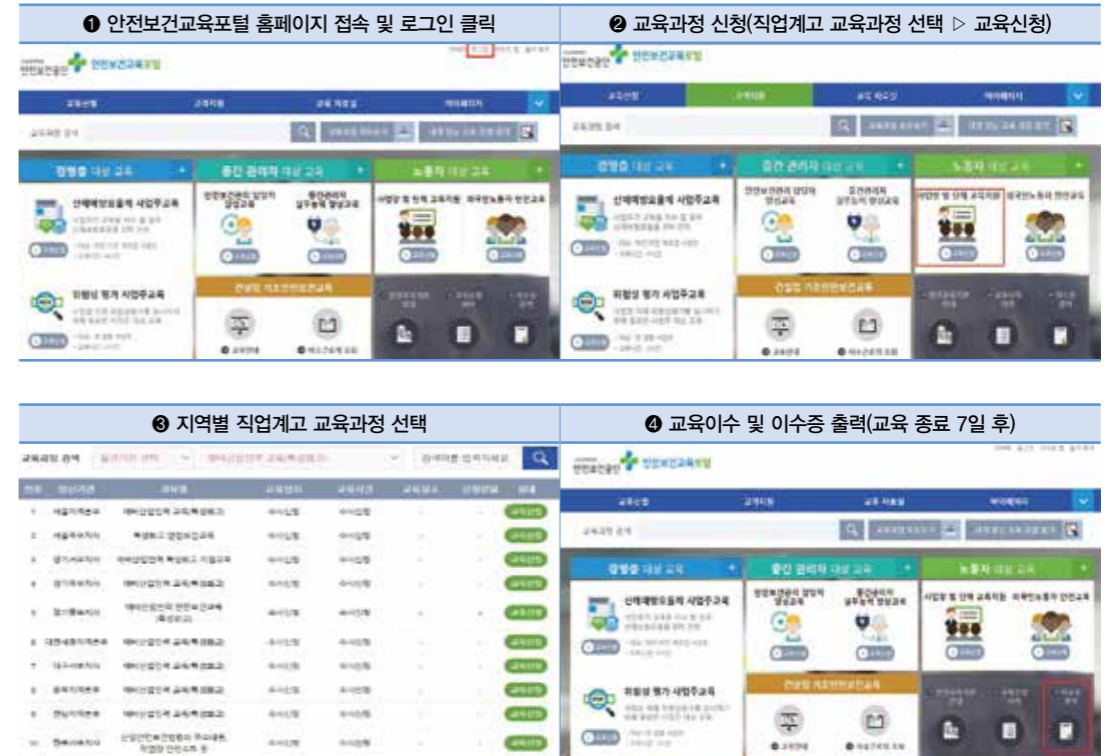
전문강사 및 실습실 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별도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안전보건 교육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부서는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 행사 시 안전강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18. 7. 3.), 안전연극 “행복을 찾아서”(2018. 7. 8.~7. 11., 3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안전보건 사고 예방 교안 발표대회(2018. 7. 3.)를 안내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산재예방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각종 행사를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응급의학과 의사 남공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그리고 [그림 3]과 같이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2,000부)을 제작하여 스토리가 있는 만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그림 2]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학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안전보건나침반’(교사용 4,500부, 학생용 50,000부)을 제작하여 현장실습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 작업 수칙, 보호구 착용방법,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내용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실습 지도 교사 및 현장실습 예정 학생에게 전달을 하였다.

[그림 3]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나침반(학생용, 교사용)



아울러, 직업계고의 직군별(공업계,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특성을 반영한 [그림 4]와 같은 표준교안(PPT)을 제작하여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업계고 실습실 내 위험요인에 관한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습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그림 5]와 같이 C 방송사의 “특성화고 청년취업자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의 “특성화고 안전 서포터즈” 모집 및 캠페인, 한국학교 보건학회의 “특성화고 안전보건교육 교안” 제작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학생 및 사회 전반에 현장실습 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방송국 및 각종 협회 등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는 서울 소재 직업계고 학생 8,959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주요 내용, 작업장 안전수칙 및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47회 실시하는 등 전국 직업계고 학생 78,480명을

[그림 5] 직업계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대상으로 52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 학교를 배려하여 교육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내부 전문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2018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94.92점을 획득하는 등 교육을 받은 학생과 교사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9. 2. 20. 교육부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표]와 같이 교육의 대상을 3학년 학생 전체에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장실습 학생으로 축소하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수칙 등 이론 위주의 강연식 집체 교육(1시간)을 보호구 착용방법, 정보전달형 VR 체험교육 등 전공별 실습 위주 교육(2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㉞

[표] 2019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개선 내용

2018년 기존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3학년 학생 전체(대학 진학생 포함) (교육방법) 직군별 강연식 집체교육(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시청각실 이용 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수칙 등 이론 위주
2019년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3학년 학생 중 현장실습 학생 (교육방법) 전공별 실습 위주 교육(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입회하에 교실 단위로 추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수칙, 전공별 맞춤형 재해 사례 중심의 표준교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착용 실습, 360° VR 콘텐츠 등 체험교육



[그림 4] 직군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표준교안



REVIEW

작성자 **문현곤** |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사업 담당

“우리 사회에 안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확산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디어개발부

학생은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에서 일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한 준비단계로 졸업 전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쌓도록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안전은 하루아침에 습관으로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몸에 익혀야 생활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에 기반을 둔 기술 지원 활동도 중요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을 생활로 확산시키는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단은 30여 년간 산업현장 노동자, 관리감독자, 경영층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지만, 예비 노동자인 직업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안전교육 실행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라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원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고용노동부·교육부와의 협업방안, 직군별 표준 교안 및 교사용·학생용 교재 개발 등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580여 직업계 고등

학교별로 안전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부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은 실천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확산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이루어 낸 ‘경제기적’이 이젠 예비 노동자들로부터 ‘산업안전의 기적’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 교육사업부

DIVISION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교육홍보본부_교육사업부

부서원 한마디

고광재 본부장



경제와 산업이 발달할수록 위험이 줄지 않고 점점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사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위험을 숨기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공단의 역할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안전을 문화로 확산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완 부장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큼니다. 국민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우려도 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은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을 익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승환 부장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어린 학생 때부터 안전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사망만인율(사망자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뛰어들기 전 예비산업인력일 때부터 안전을 습관화합시다. ☺

이정세 차장



관계자분들 모두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안전을 중시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전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학생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함께 업무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정진영 대리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신문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범사회적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9

산림공중진화대 운용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기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공중진화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공중진화대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주야간으로 발생하는 산불 진화를 위해 신체상해의 위협이 있는 보이지 않는 산속 재난현장에서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피해방지를 위하여 산림헬기와 진화대원을 활용한 산림공중진화대(2019년 4월 현재 11개 팀 66명, 이하 “공중진화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불진화 시스템은 진화장비도 갖추지 못한 일반 주민들과 공익요원 등이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비전문적인 진화체계였으며, 이는 1996. 4. 23.부터 4. 25.까지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강원 고성산불(피해면적 3,762h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은 미국의 산림소방대원 스모크점퍼(Smoke Jumper)와 캐나다의 헬기공중진화대(Helitack Crews)등을 벤치마킹하여 1997. 3. 14. 우리나라의 최초 산불진화 전문조직인 ‘산불공중진화대*’를 설치하였다.

* 창설 당시 5개 팀 40명, 이후 산림공중진화대로 명칭 변경

공중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산불 발생지역에 접근한 후, [사진]과 같이 레펠(rappel)을 통해 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되어

[사진] 공중진화대 임무 수행 현장





또한, 해운대 산불이 진화된 날인 2019. 4. 4. [표]와 같이 강원도 고성군·인제군에서도 동시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인제 산불현장에 공중진화대 2개 팀(본부·서울 공중진화대)을, 고성 산불현장에는 4개 팀(강릉·울진·안동·진천 공중진화대)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강원도 미시령의 경우 시기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당시 순간 최대풍속 28.9㎧)이 불고 있어 산불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중진화대는 밤새 산불을 진화하였고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강원도 고성군 산불현장에서는 주민대피와 이재민 수송 등 민가보호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수색작업을 병행하였다.

* 봄철 강원도 양양과 고성군 사이에서 발생하여 남서쪽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매우 빠름



절벽지, 암석지 등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산불을 진화하며, 야간 산불 발생 시에는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지상으로 이동한 뒤 개인진화장비 및 기계화산불진화장비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공중진화대는 주 임무인 주야간 산불진화와 더불어 산불현장 대책본부의 공중진화반 운영에 따른 현장 자문역할, 산림헬기 등 공중진화자원 지원, 드론을 이용한 야간산불현장 자료 및 도식도 제공, 산불 및 산악구조 업무도 함께 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림사업 자재운반 지원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 이후 2019년 현재까지 2013년 3월 포항시·울주군 산불(피해면적 380ha, 피해액 95억 원), 2017년 5월 강릉시·삼척시 산불(피해면적 1,017ha, 피해액 608억 원)에 투입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산불현장에 투입,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2019. 4. 2.부터 4. 6.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와 강원도 고성군·인제군·강릉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2019. 4. 2. 발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 산불의 경우 도심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공중진화대가 소집·투입되었고, 이 산불이 진화된 4. 4. 각각 남원시 산불과 아산시 산불현장에 재투입되어 진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강원도 고성군·인제군에서의 밤샘 진화와는 별도로 4. 4. 강릉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하여 공중진화대는 11팀, 58명으로 구역을 나누어 야간산불 진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발생 시 공중진화대 대응 현황

구 분	강원 고성군	강릉시	인제군
일 시	4. 4. 19:17~4. 5. 08:15	4. 4. 23:46~4. 5. 16:54	4. 4. 15:20~4. 7. 9:30
장 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읍 원암리	강릉시 옥계읍 남양리 958	인제군 남면 남정리 503-2
피해 면적	250ha	250ha	30ha
투입 장비	헬기 16대/ 장비 116대	헬기 37대/ 장비 267대	헬기 14대 등
공중진화대	4개 팀(27명)	11개 팀(58명)	2개 팀(12명)

그러나 산불진화전문가인데도 험준한 지형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2018년 공중진화대원 1명이 산불 진화 현장 결빙으로 인해 급경사지에서 추락해 경추골절 및 탈구사고를 당했고, 2019. 4. 2. 부산광역시 해운대 산불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까지 5일간 산불에 투입된 공중진화대원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신체상해의 위협 속에서도 공중진화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REVIEW

작성자 **홍성민**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주무관

“어둠이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야간 산불현장에서 모두가 안전을 위해 산에서 내려올 때 유일하게 거꾸로 산불을 향해 산에 올라가는 공중진화대로서...”



매년 산불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화재는 작은 공간에 장비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소방관이 진화하지만, 산불 진화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헬기가 물을 뿌려 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속 빈 나무나 낙엽층 등 방화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사람이 직접 작은 불씨 하나하나를 제거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산불을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안에 '공중진화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

를 타고 이동해 로프를 타고 레펠로 하강하여 산불현장 가장 가까이 투입되어 험준한 산악지역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인명 구조, 화물 운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산불 발생빈도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간 대형산불이 대체로 격년을 주기로 발생했지만, 올해처럼 강원도 3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20년 가까운 공중진화대 생활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였으니 앞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는 대형산불이었습니다.



이번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4월 4일 인제를 시작으로, 4일 저녁에는 순간풍속이 35.6m/s에 달했던 강풍을 타고 고성·속초지역 근처 야산 및 주택가로 옮겨붙었고, 4일 밤에는 강릉·동해 지역 해안가까지 삽시간에 번져갔습니다. 불꽃들은 차량보다 더 빨리 지나갔으며 푸른 숲과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산불현장 속에서 우리 '공중진화대'는 그늘음이 가득한 새까만 손과 얼굴, 불 내음과 잿가루가 쌓인 진화복을 입고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합니다. 산불현장은 어둠과 가파른 경사, 암석지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산불 진화는 연기와 어둠으로 인해 퇴로가 확보되지 않아 랜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진화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질식,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대형산불 이후 SNS나 매스컴을 통해 공중진화대가 산불현장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재조명되었고, 격려 방문과 위로 전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모범부서 표창을 받게 되어 공중진화대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부서로 선정해 주신 감사원에 감사드립니다. 공중진화대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으로서 산불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온몸으로 맞서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DIVISION

▶ 산림청_산림항공본부_산림공중진화대

부서원 한마디



팀장 조복연

우리나라 산림 보호의 최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열정을 가지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은 팀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중진화대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집시다. 📌



주무관 한승민

군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공중진화대는 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의 65%인 산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영웅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중진화대원들은 가족과 꽃구경 가는 게 소원이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나들이 가기 좋아하는 날이면 우리는 긴장 속에 출동 준비를 하고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힘을 얻어 산불 속으로 주저 없이 달려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중진화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뜻깊은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주무관 최관식

어둠이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야간 산불현장에서 모두가 안전을 위해 산에서 내려올 때 유일하게 거꾸로 산불을 향해 산에 올라가는 공중진화대로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책임감을 느끼고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공중진화대'라는 모두의 이름으로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동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땀 흘리고 노력하는 공중진화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최원상

공중진화대로서 며칠 밤낮을 새며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조한 날씨와 매서운 바람에도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력, 산림청 산불상황실의 의사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공중진화대 화이팅! 📌

부서원 한마디

주무관 최범목



1997년 3월 산림청 공중진화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여간 전국의 산불 지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기와 잿가루를 마셔가며 산불 진화를 하면서, 대원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로 나무들과 주택들이 타들어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빨리 진화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어진 임무 수행을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공중진화대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중진화대원들은 국민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무관 이은학

헬기 레펠 하강 등 고난도의 임무 수행에 따른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며 후배양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기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공중진화대원으로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무관 박성원

1996년 4월 최대 규모의 강원도 고성산불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교훈 삼아 대통령령으로 발족한 공중진화대는 국토의 65%인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피와 땀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오늘도 각자가 맡은바 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10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 확산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구축 및 적용 확대로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는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200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민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 대신 구비 서류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발굴하는 등 범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 등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이와 관련하여 위 부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여 2019년 3월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 166종의 행정정보가 총 742개 기관에서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조회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조회·확인할 수 있고, 공동이용 대상 업무가 민원사무 등에 국한되어 있는 등 활용범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었다.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 등에 구체적인 활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위 부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마련하고, 그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체육 시설, 공영주차장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위 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2017년 구축 당시에는 서비스명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였으나, 2019년부터 자격 중수 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서비스명이 변경됨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위 부서는 2016년 1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요 조사를 하였는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자격정보를 공동이용하여 체육시설 수강료를 온라인으로 감면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

시설 전반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법정 할인대상자의 자격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다음 [사례 1]과 같이 정상요금을 결제한 후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일부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과 이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감면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례 1 기존 법정 감면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 유형

1.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결제는 가능하나,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 온라인상에서 정상요금으로 결제하고, 향후 현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불
2. 법정 감면대상자는 온라인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현장에 증빙서류를 지참한 채 방문하여야 요금 감면 및 결제 가능
3.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선택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나, 추후 현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공공시설 이용 가능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시설 홈페이지는 지방공사·공단 등이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공시설 예약·신청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거나 민원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등으로 이용요금 감면 등에 필수적인 정보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장애인 여부 등의 법정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위 부서는 지속적인 부서 내 아이디어 회의와 기술 검토 등을 통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정 감면자격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예약·신청 홈페이지 이용 시 [그림]과 같이 이용자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 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정보를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제공·동의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반의 서비스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사례



이를 위해 위 부서는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2017년 4월 발주 예정이던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 유통허브 고도화사업”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내용을 추가·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서비스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 법정 감면대상자 여부(Y/N) 정보만을 제공하는 표준 연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그리고 위 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요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요건을 전수 분석·검토하는 한편,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기반으로 감면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등 10개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관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2018년까지 계 28종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개별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보유기관에 이용승인을 요청함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에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감면자격 정보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할 수 있도록

[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내역

구축연도	행정정보 보유기관	행정정보명(자격명)	종수
2017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여부	1
	국세청	•모범납세자 여부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Y/N),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장애인 등급 정보,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여부, 차상위 수혜자 여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여부	6
	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1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동차 제원 및 등록지	2
	행정안전부	•18세 이하 자녀 수, 70세 이상 부모 여부, 거주지 행정코드(관내 주민) 여부, 막내자녀 나이, 전체 자녀 수	5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여부	1
2018년	법무부	•외국인 거소사실 여부	1
	병무청	•병역 명문가 여부	1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봉사시간) 정보, 다자녀 정보(자녀 수, 생년월일), 65세 이상 노부모 생년월일	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1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여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여부,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 여부	3
	한국환경관리공단	•친환경 차량 여부	1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원(경차 여부)	1
	합계		28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승인은 보안수준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각 기관 담당자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위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웹페이지 방식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500만 원, 2,000만 원의 시스템 기능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비용산정 기준)

이에 위 부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수요조사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음 [사례 2]와 같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 2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17. 7. 18.부터 체육시설 예약·신청 서비스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2018. 12. 31.까지 장애인 4,354건, 국가유공자 1,147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574건, 한부모가족 1,086건 등 계 7,161건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 7.까지 약 2.5개월 동안 경차,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 등 112,476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함으로써 매년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차량 혼잡을 개선하고, 경차 등 차종 판별기 미설치로 약 4.5억 원의 예산을 절감

그리고 위 수요조사 등에 따라 2017년 5월까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2017. 9. 19.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9개 기관과 2018. 11. 21.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2019년에는 지역별 재정여건 차이에 따른 서비스 적용 지연 등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함

이에 따라 2019년 4월 현재까지 성동구시설관리공단 등 계 18개 기관의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적용됨에 따라 총 563,218건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9억여 원*으로 같은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위 부서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 5,172원[구비서류 1건당 발급 평균비용(미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BPR/ISP) 완료보고서, 행정안전부)]×563,218건(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활용 건수)으로 산정함

▼ 2019년 10월 17개 시도 실무협의회



REVIEW

작성자 **구자일**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주무관

“국민을 위하는 일꾼으로서 책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앞장 서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생활 환경과 모습으로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약 5,140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가정의 구성원이나, 재산과 소득 부분이 안정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 반면, 사회적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 사회적 약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되는 국민 구성원들도 존재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17년부터 도입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서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쉽고 간단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이 본인의 자격을 소명하기 위해 요구받던 종이서류 제출을 없애

않아도 되어 약 4.5억 원의 운영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차 지연 감소, 자동 감면 결제 등 시간 절감 편익을 산출하면 연간 약 3억 8천만 원의 경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감면서비스를 통해 입증된 실시간 자격확인 방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 지원 가산점 대상(자격증,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이나 스포츠 바우처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확인, 그리고 공영주차장 대상선정(거주자 우선 주차)이나 주차요금 결제 시(친환경자동차, 장애인등록차 등)에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하는 일꾼으로서 책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앞장서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핀셋으로 집어내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지난 5년간 전자정부의 공동이용 · 활용을 위해 일해온 저에게는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으뜸인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불필요한 종이서류가 발급되고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쉽고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낙인을 없애는 데도 기여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일 평균 5만 대 이용)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여 경차 · 친환경차 등 감면정보(5종) 대상에 대하여 일 평균 약 2만 건을 감면 처리함으로써 결제 시 혼잡을 개선하였고, 차종판별 인프라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DIVISION

▶ 행정안전부_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부서원 한마디

과장 하승철



그동안 장애인·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및 할 인요금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낙인효과 우려 없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

이성은 서기관



구비서류 없이도 알아서 척척, 빠르고 투명한 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홍기주 사무관



조만간 전국의 공공시설에서 즉시 감면서비스가 구현되리라 기대합니다. 국민이 간편하게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에 더욱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영 사무관



초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 힘들게 사업을 가꾸어 오신 분들의 노고가 이번에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의 릴레이 주자로서 배턴을 이어받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유과 파이팅! ☺

박정진 주무관



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저희 과에 와서야 처음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보조회, 정보유통 및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노력의 결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행일 2019.12

인쇄 2019.12

발행처 감사원

전화 02, 2011, 2114

Homepage www.bai.go.kr

디자인·인쇄 (주)초이스디자인 02, 2275, 2633